

전남도, 저소득·취약계층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3억8100만원 들여 635대 보급...난방비 부담 해소 기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복지시설도 혜택

전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635대를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일반가정은 제외됐으며,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정부

보조금(지방비 포함) 60만 원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가구가 환경부와 협약한 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셀텍에너지, 알토엔대우, 4개사의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제조업체가 추가로 10만~20만 원을 지원해 일부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https://ecosq.or.kr>)이나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 자체 사업으로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보일러(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노후 보일러 교체 시 대기 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로 교체하도록 1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는 에너지를 절감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큰 만큼 도민이 관심을 갖고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만6458대를 지원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질소산화물은 연간 87%, 일산화탄소는 71%, 이산화탄소는 19% 저감된다. 특히 열효율이 높아 연간 가스요금을 최대 44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2024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저소득층 + 다자녀 가구 + 사회복지시설

2023년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다자녀가구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나주시 보건소, ‘고혈압·당뇨 건강케어 교실’

30세 이상 만성질환자 선착순 30명 모집



나주시 보건소(소장 강동렬)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건강케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고혈압·당뇨 건강케어 교실’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오는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8주간 4회차로 진행된다.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

은 30세 이상 나주시민이면 온라인(<https://m.site.naver.com/11WV6>) 또는 전화(☎ 061-339-4813)로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방법 ▲영양·운동 및 구강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함평군보건소,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 무료검진 시행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추후 검사가 진행



함평군보건소는 12월까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 들어왔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되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는 상태로 타인에게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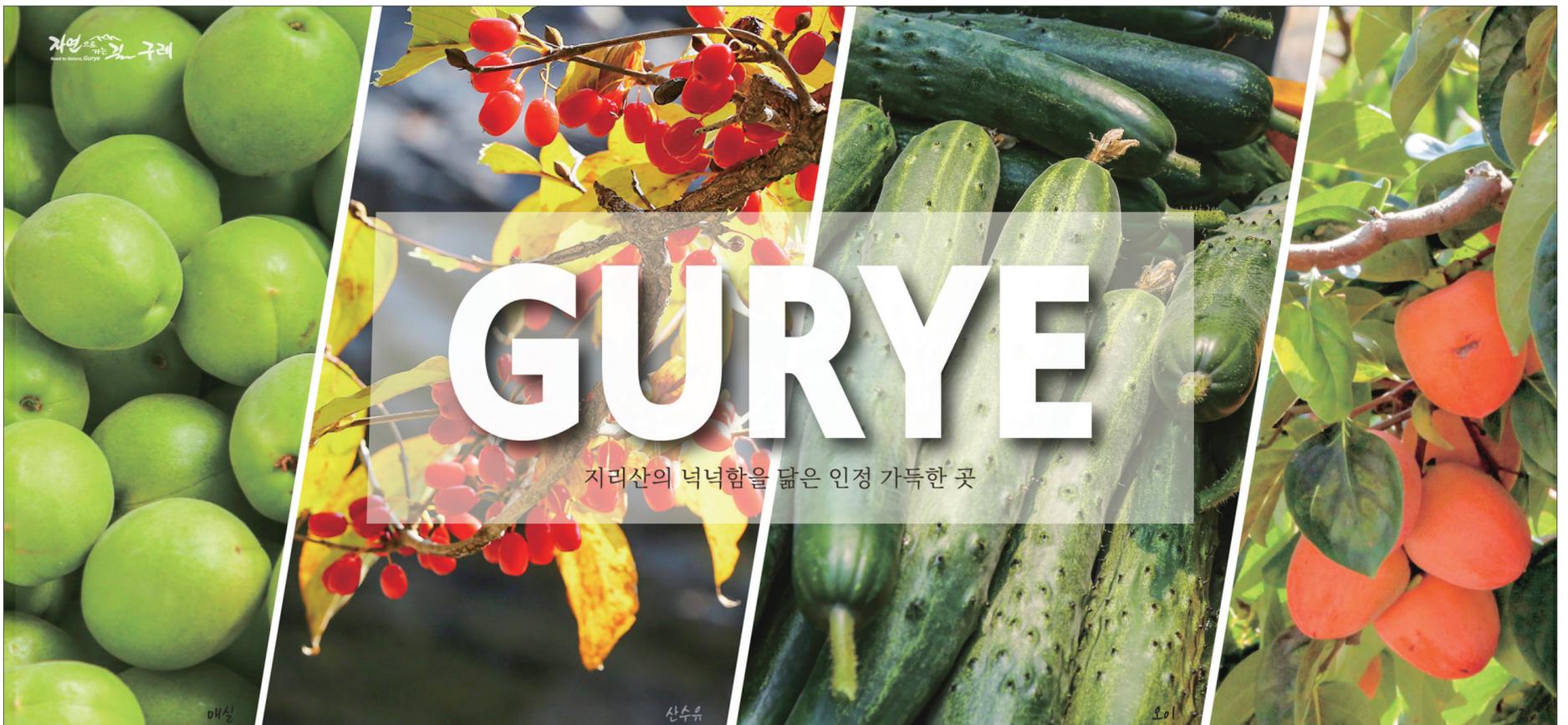
핵균이 전파되지는 않으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있어 관리 대상이다.

이번 검진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돌봄시설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 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등학교(돌봄교사)가 해당된다.

잠복결핵검사를 위한 체력은 함평군보건소에서 하며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추후 검사가 진행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2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50%로 높은 만큼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결핵검진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본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잠복결핵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닮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